정보

개요
작곡가: Gustav Mahler (1860–1911)
작품명: Das Lied von der Erde
부제: Eine Symphonie für eine Tenor- und eine Alt- (oder Bariton-) Stimme und Orchester
기준 범위: 관현악판 GMW 49-O
작곡: 1908–1909
초연: 1911년 11월 20일, Munich, Konzertvereinsorchester, Bruno Walter, Sarah Charles
Cahier, William Miller
전악보 초판: 1912년, Universal Edition
IMSLP: Das Lied von der Erde, GMW 49

Wikipedia: Das Lied von der Erde

Das Lied von der Erde는 테너와 알토 또는 바리톤, 그리고 관현악을 위해 쓴 여섯 부분의 성악 교향곡이다 . 독창 성부는 테너와 낮은 성부가 세 번씩 교대하며, 끝부분인 Der Abschied가 약 30분에 이르러 앞의 다섯
부분 전체에 맞먹는 시간과 무게를 차지한다. 여섯 부분은 이 비대칭의 흐름 안에서 성부 교대와 마지막 확장을 하나의 큰 형식으로 묶는다.

출판 정보와 자료

Mahler는 이 작품의 출판과 초연을 직접 보지 못했다. 관현악 전악보는 작곡가 사후인 1912년에 나왔고, 이후의 판본은 서로 다른 자료와 편집 원칙을 거쳐 만들어졌다 . Internationale Gustav Mahler Gesellschaft 는 1990년 Karl Heinz Füssl의 개선판과 2012년 Stephen E. Hefling이 편집한 Mahler 자필 피아노판을
별도로 기록한다. 자필 피아노판은 Mahler가 작성한 독립 피아노판으로 , 관현악판과 구별되는 자료 가치를 지닌다.

Christian Rudolf Riedel이 편집한 Breitkopf & Härtel판은 자필 악보와 판각용 원고에 남은 수정, 자료의
전승과 편집 판단을 비평 보고에 제시하는 텍스트비평판이다 . Internationale Gustav Mahler Gesellschaft 는 Stephen Hefling 편집의 관현악 NKG Band IX를 준비 중으로 기록한다.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초판, Füssl 의 개선판, Riedel의 비평판은 각각의 출판 시점과 편집 원칙을 밝힌 채 구별해 다룬다.

소요 시간

전곡: 약 60~65분

- *Der Abschied*: 약 30분

Berliner Philharmoniker의 안내는 전곡을 60분으로, Breitkopf & Härtel의 현행 관현악판은 65분으로 제시한다. 실제 공연 시간은 독창과 지휘, 마지막 부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특히 *Der Abschied*의 길이가 전곡의 비대칭을 결정한다.

편성

구분	편성
독창	*Tenor*, *Alt (oder Bariton)*
목관	*Piccolo*, *Flöte* 3, *Oboe* 3, *Englischhorn*, *Klarinette* 계열, *Bassklarinette*, *Fagott* 3, *Kontrafagott*
금관	*Horn* 4, *Trompete* 3, *Posaune* 3, *Tuba*
타악기	*Pauken*, *Schlagzeug* 4인: *Glockenspiel*, *Triangel*, *Becken*, *Tamtam*, *Tamburin*, *Große Trommel*
그 밖의 악기	*Harfe* 2, *Celesta*, *Mandoline*, 현악 5부

목관과 금관, 타악기, 현악을 갖춘 관현악 편성 속에서 *Der Abschied*의 핵심 지점에는 *Mandoline*, *Harfe*, *Celesta*가 독창 성부 주변에 놓인다. 넓은 관현악과 이 작은 독주적 색채가 한 악보 안에서 만나는 방식도 작품의 성격을 드러낸다.

여섯 부분이 만드는 교대

관현악판 GMW 49-O의 표제와 빠르기 지시는 다음과 같다. 피아노판에는 일부 표제와 지시가 다르게 남아 있으므로, 아래 배열은 관현악판의 표기를 기준으로 삼는다.

부분	표제와 빠르기 지시	성부	전곡 안의 자리
1	*Das Trinklied vom Jammer der Erde. Allegro pesante*	*Tenor*	술노래의 격렬한 어조 속에서 ‘Dunkel ist das Leben, ist der Tod’가 되돌아오며, 생의 환희와 죽음의 의식을 동시에 세운다.
2	*Der Einsame im Herbst. Etwas schleichend. Ermüdet*	*Alt (oder Bariton)*	첫 부분의 바깥을 향한 힘을 낮은 성부의 가을 풍경과 고독으로 바꾼다.
3	*Von der Jugend. Behaglich heiter*	*Tenor*	다시 테너가 등장해 젊음의 장면을 짧고 밝은 결로 비춘다.
4	*Von der Schönheit. Comodo Dolcissimo*	*Alt (oder Bariton)*	젊은이들과 아름다움의 장면을 낮은 성부 쪽으로 옮기며, 세 번째 부분의 경쾌함과 다른 시간 감각을 만든다.

부분	표제와 빠르기 지시	성부	전곡 안의 자리
5	*Der Trunkene im Frühling. Allegro*	*Tenor*	봄의 술꾼을 노래하는 테너가 마지막으로 돌아온다.
6	*Der Abschied. Schwer*	*Alt (oder Bariton)*	두 시를 결합한 긴 종결부로, 앞의 다섯 부분이 만든 계절과 삶의 장면을 작별의 시간 안에 모은다.

테너가 1·3·5부분을, 알토 또는 바리톤이 2·4·6부분을 맡는 배열은 성부별 배역의 구분을 넘어 전곡의 형식을 움직인다. 각 성부가 세 번씩 돌아오면서도 마지막에는 낮은 성부가 길게 남는다. 앞의 다섯 부분에서는 성부의 교대가 장면을 바꾸고, 마지막에서는 그 교대가 멈춘 자리에 하나의 긴 독백과 관현악의 시간이 열린다.

중국 시에서 독일어 작품 텍스트까지

이 작품의 독일어 가사는 당나라 시의 원문에서 프랑스어 번역, Hans Heilmann의 선집, Hans Bethge의 재창작, Mahler의 개작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졌다. Bethge는 중국어를 알지 못한 채 Hans Heilmann의 *Chinesische Lyrik*과 프랑스어 중간 번역을 바탕으로 1907년 *Die chinesische Flöte*를 만들었다. Mahler는 1908년 여름 Theobald Pollak에게서 이 시집을 받고, 83편 가운데 일곱 편을 골라 고치고 재배열해 여섯 부분의 작품 텍스트로 만들었다.

원전, 중간 번역, Bethge의 *Nachdichtungen*, Mahler의 개작은 서로 다른 번역과 재창작의 단계에 놓인다. 연구는 첫째·셋째·넷째·다섯째 부분을 대체로 Li Bai와, 둘째 부분을 Qian Qi와 연결한다. *Der Abschied*는 Meng Haoran과 Wang Wei의 시를 결합한 경우다. 다만 *Von der Jugend*의 정확한 원전 귀속에는 이견이 남아 있다. 이 계보는 독일어 작품 텍스트가 여러 전승과 개작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.

Mahler는 시를 고르고 순서를 조정하는 데 더해 가사의 문구에도 손을 댔다. 첫 부분에서 되돌아오는 ‘Dunkel ist das Leben, ist der Tod’는 Bethge의 독일어 텍스트에 이미 있던 구절이며, 마지막 *Der Abschied*에는 Mahler가 더한 마무리 구절이 있다. 작품의 가사는 동아시아 시의 원문, 유럽의 번역과 재창작, Mahler가 고쳐 만든 독일어 텍스트가 차례로 겹쳐 생겼다.

*Der Abschied*가 바꾸는 전곡의 비례

*Der Abschied*는 두 개의 작별 시를 하나로 묶는다. Mahler Foundation의 악장 해설은 이를 세 큰 구간으로 설명한다. 해가 지는 자연을 바라보는 첫 구간, 친구를 기다리는 두 번째 구간, 긴 관현악 간주 뒤에 두 사람이 작별을 주고받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세 번째 구간이다. 이 구조는 마지막 부분을 전곡의 시간 비례를 다시 정하는 긴 종결부로 만든다.

성악선율과 독주 악기가 마디선을 넘어가는 대목에는 *Ohne Rücksicht auf das Tempo*라는 지시가 있다. Bruno Walter가 훗날 Mahler와 나눈 대화로 전한 회고도 이 부분과 연결된다. 이 악보 지시와 회고는 작곡가가 마지막 부분의 호흡을 예외적인 문제로 다루었음을 보여 준다.

마지막 마디에 이르면 Mahler가 덧붙인 구절의 ewig가 아홉 번 반복된다. Mandoline, 두 대의 Harfe, Celesta와 지속되는 관현악 화음이 이 반복을 받친다. 첫 부분의 죽음에 대한 후렴이 거칠게 돌아오는 것과 달리, 끝의 반복은 전곡을 단정한 결론으로 닫기보다 멀어지는 시간 속에 남겨 둔다.

초연과 Bruno Walter의 수용사
Mahler는 이 작품을 직접 연주하지 못했다. 1911년 11월 20일 Munich에서 Bruno Walter가 Konzertvereinsorchester, Sarah Charles Cahier, William Miller와 함께 초연했으며 , 이 무대는 Mahler 사후 여섯 달 만에 열린 전곡 초연이었다 . Walter가 지휘한 이날의 전반부가 Das Lied von der Erde였고, 후반부에는 교향곡 제 2번이 놓였다.

Walter는 Mahler의 조수로 함께 일했던 가까운 협력자였고 , 1936년 Wiener Philharmoniker와 이 작품의 첫 녹음을 남겼다. 그는 1952년 Kathleen Ferrier, Julius Patzak, Wiener Philharmoniker와도 다시 녹음했다. Mahler가 이 작품을 지휘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. Walter의 두 녹음은 초연 지휘자가 남긴 수용사 자료로서, 작곡가와의 관계와 초연 경험을 함께 전한다.

주요 자료

Berliner Philharmoniker 프로그램 노트

Journal of the Royal Musical Association: Edwin K. C. Li, Re-translating Mahler’s Das Lied
von der Erde

Internationale Gustav Mahler Gesellschaft의 작품 목록

Internationale Gustav Mahler Gesellschaft의 판본 계획

Breitkopf & Härtel: Christian Rudolf Riedel 편집 관현악판

The Cleveland Orchestra의 작품 해설

Mahler Foundation: 작품 연혁
Mahler Foundation: Der Abschied

Mahler Foundation: Bruno Walter

Revision #1
Created 2026-10-04 10:06:53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-10-04 10:06:53 UTC by 안준영